

건강한 웹 생태계 조성 위해 '나쁜 광고' 퇴출돼야

광고계, 광고학회 공동 연구 '한국형 나쁜 광고' 10가지 선정해 개선 촉구 포털의 광고 환경 개선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주도적 노력 필요 지적



디지털 광고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나쁜 광고'를 퇴출하고 광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 한국광고주대회'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에서 김운한 선문대 교수는 "올해 디지털 광고시장은 4조원을 넘어 최대 규모의 광고매체로 성장했지만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성가신 광고 또는 유해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며 "나쁜 광고를 퇴출, 개선하고 건전한 광고 유통 환경 조성에 포털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나쁜 광고(Bad-Ads)는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 광고의 긍정적인 기능을 저하시키는 광고로 인터넷 이용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팝업광고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구성된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유럽연합(EU)이나

'더 나은 광고연합(Coalition for Better Ads : CBA)'은 나쁜 광고를 퇴출하고 유해한 사이트는 차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인터넷 광고 생태계를 위한 개선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쁜 광고 퇴출 노력은 공정 거래의 기반

이번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한국형 나쁜 광고'는 10가지 유형으로 ▲종료 불가 광고 ▲팝업광고 ▲대형 스티커 광고 ▲전체화면 스크롤러 광고 ▲콘텐츠와 함께 자동으로 재생되는 광고 ▲불법도박광고 ▲성 관련제품 광고 ▲마약, 규제약물, 위험품목 광고 ▲혐오적 표현의 미용수술·시술 광고 ▲테러, 인종차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 광고다.

김 교수는 "위의 10가지 유형의 나쁜 광고를 퇴출하는 노력은 결국 이용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자 공정한 거

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광고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광고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담당자가 체감하는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주요 포털사가 책정한 디지털 광고 가격에 대한 불신 및 광고회사의 무분별한 광고 판매 ▲광고 횡수, 노출, 클릭률 등 데이터 조작(Ad fraud)에 대한 통제 불능 상황 ▲인터넷 사업자의 유해 광고 관리 대응 노력 부족 및 관리 기구 부재 등이 꼽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부터 한국광고학회와 한국광고주협회가 공동 진행한 것으로, ‘한국형 나쁜 광고’ 유형을 선정하고 이를 퇴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디지털 광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기업 광고담당자 90명 및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rvey)를 실시했으며,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표적집단면접) 방법을 사용해 사전조사를 거친 후 본 조사를 실시했다.

기업의 한 광고담당자는 “디지털 광고는 타깃 마케팅에 좋은 매체지만 실제로 원하는 곳에 광고가 노출된다는 보장이 없고 적절한 가격에 대한 기준도 없으며 이를 검증해줄 객관적인 시스템도 없다”고 지적하며 “업계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신뢰할만한 광고효과를 검증할만한 제3의 기관이나 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 나은 광고 환경을 위해서는 ▲포털사의 광고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주도적 방안 마련 ▲유해한 광고 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광고 제재 방안 마련 ▲객관적인 디지털 데이터 조사 및 효과적인 광고 측정 시스템 마련 ▲나쁜 광고 퇴출 및 온라인 광고 관련 협업을 위한 관산학(官産學) 협의체 구성 ▲중소 광고주와 매체사에 대한 중장기적 규제 및 지원 등 관리 방안 등이 제안됐다.

광고주협회 광혁 상무는 “건전한 디지털 광고시장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광고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광고계와 협력해 나쁜 광고를 퇴출하고 광고집행에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 A A**

〈표〉 한국형 나쁜 광고 10가지

| | | | |
|--|--|--|---|
| | | | |
| <p>광고에 종료 버튼이 없거나 종료버튼이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광고</p> | <p>인터넷 화면에 삽입되어 있던 광고 페이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콘텐츠를 차단하는 광고 (일명 팝업광고)</p> | <p>화면의 30% 이상을 덮고 스크롤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광고 (일명 대형 스티커 광고)</p> | |
| | | | |
| <p>콘텐츠 상단에 게재되어 전체화면을 차지하는 광고 (일명 전체화면 스크롤러 광고)</p> | <p>콘텐츠를 열면 콘텐츠와 함께 자동으로 재생되는 광고 (일명 자동재생광고)</p> | <p>불법 도박 광고</p> | |
| | | | |
| <p>성적인 내용 (과도한 노출, 신체부위를 집중적으로 묘사) 및 성 관련 제품 광고(성기구 등)</p> | <p>마약, 규제약물, 위험품목 광고 : 마약, 규제 약물이나 물질 또는 기타 위험 품목의 광고</p> | <p>신체를 이용한 광고 (성형수술, 다이어트, 지방제거 등의 혐오적 표현)</p> | <p>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 (전쟁, 테러, 극단주의, 인종차별) 광고</p> |